

선학원, 조계종과 결별 수순 밟나

4월 11일 개최한 선학원 이사회의
'종지종통 봉대' 등 정관 삭제 결의

4월 1일 공포된 법인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재)선학원(이사장 법진)이 조계종과의 선관계에 들어갔다.

(재)선학원은 4월 11일 이사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2002년 합의 이전 정관으로 정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학원 정관에 있었던 '조계종 종지 종통을 봉대한다', '임원은 조계종 승려로 한다'는 조항은 삭제됐다.

또한 간월암, 정혜사 등 수덕사와의 문제는 부처님오신날 불축행사 이후 법적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법인법을 전제로 하는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와의 회동에는 일체 응하지 않기로 결의했다.

'조계종과의 관계를 정리하나'는 기자들의 질문에 총무이사 송운스님과 재무이사 현진 스님은 "오늘 결정의 의미를 살펴보면 알 것"이라고 밝혔으며, '대화의 여지는 없다'는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회견을 마무리했다.

이번 (재)선학원 이사회 결정은 지난 3월 열린 이사회의 결의 내용을 확인한 것이지만, 종단과의 대화 거부와 법률 쟁송 부분은 중정진제 스님이 시중을 발표하면서까지 만류한 것이어서 교계 안팎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중정진제 스님은 4월 2일 '선학원 관련 시중(示衆)'에서 "선학원이 종단 사찰과 큰스님들의 재산 출연을 통해 설립된 법인임을 모든 종도들은 깊이 명심해야 한다. 조계종도로서의 정체성을 해

하는 언행이 있을 때는 모든 종도들의 강한 지탄이 있을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며 "선학원 이사회는 분원장들의 이 같은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종단 집행부와 선학원 이사회는 사회법에 의한 쟁송 등 파승가적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또한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회(위원장 성직)도 4월 9일 2차 회의에서 오는 25일 선학원 이사 스님들과 만나 법인법 쟁점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로 결의하고 11일자로 선학원에 공문을 보내기도 했

간월암 등 문제 법적 조치
선학원 "대책위 회동 불응"
대책위, "차분히 대응할 것"
교계 안팎 파장 커질 듯

다. 하지만 (재)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책위와 이사회의 회동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이 같은 (재)선학원 이사회의 결정에 조계종 총무원과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수위를 보며 차분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선학원 대책위원회는 4월 17일 회의를 예정하고 있고, 총무원은 16일 법인법 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한다. <차주 상보>

조계종 선학원 대책위원장 성직 스님은 본지와 통화에서 "아직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대책위 회의를 조속히 열겠다. 차분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간사 정범 스님은 "법인법은 종도를 증명하는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문제점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대화에 나서서 이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대화 거부를 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관련 기사 3, 31면



국사의 비문으로 매화 향기 날아들고...

고려 때, 월출산 남쪽엔 큰 가람이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람은 사라졌다. 전날 강진군 월남사지. 4월 8일, 다시 짓지 못한 법당 위엔 그때 그 매화가 다시 피었다. 절을 지었던 전각 국사의 비문 앞으로 매화 향기 날아든다.

고려 때, 월출산 남쪽엔 큰 가람이 있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지 않았기에 전쟁이 일어나고 가람은 사라졌다. 전날 강진군 월남사지. 4월 8일, 다시 짓지 못한 법당 위엔 그때 그 매화가 다시 피었다. 절을 지었던 전각 국사의 비문 앞으로 매화 향기 날아든다.

조계사 주변 고도제한 통해 난개발 막는다

서울시, 최고 20m 이하... 6m 미만 도로변도 동일

서울시가 조계사와 운현궁 주변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소규모 필지에 대한 최고 높이(20m 미만)를 제한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4월 10일 제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조계사·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을 수정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함께 두 지역 건물에 유한궁 주변 1·2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였던 두 지역을 '조계사 주변 지구단위계획(조계사 지구)'과 '운현궁 주변 지구단위계획(운현궁 지구)'으로 변경했다.

936호 INDEX

종합
한국 최초 호스피스 병원 건립
2014 인천AG 성공기원 수록제
올해 연등축제는 'CLEAN'
거리기부도 신용카드로
봄맞이 트래킹 템플스테이

2·3
시방세계
도심사찰 쉼터 공간 뜬다



5
강의실- 불교와 자본주의
8
불국토 경주 남산을 오르다
신라 탄생과 유상곡수의 흔적들
12
문화
20
한암·탄허 선필 한자리에

"한반도 위기 대화로 해결"

한반도평화대회운영위, 4월 11일 성명 발표

불교계가 나날이 경색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에 대해 남북한 양측이 대화로 문제를 풀어줄 것을 호소했다.

한국전쟁 정전60주년 한반도평화대회운영위원회(상임운영위원장 수불)는 4월 1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한 한반도 정세를 대화로 해결할 것을 남북한 정부에 촉구했다.

평화대회운영위는 "현재 한반도는 전쟁의 위협과 불안이 날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다"며 "북한은 이미 남북화해와 협력의 산물인 개성공단을 잠정 폐쇄했고, 미사일로 위협하며 최소한의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과 체제를 떠나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독자적 존립은

불가능하며 결코 바람직한 체제도 아니다"며 "북한은 남북한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화대회운영위는 한반도 긴장 해소와 평화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국 등 한반도 주변 국가 정상들과 회담을 갖거나 대북 특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했으며, 미국과 중국 지도자는 한반도와 동북아 그리고 세계 공단을 잠정 폐쇄했고, 미사일로 위협하며 최소한의 대화마저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념과 체제를 떠나 지구상의 어느 국가든 독자적 존립은 불가능하며 결코 바람직한 체제도 아니다"며 "북한은 남북한과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대화와 교류의 장으로 나와야 하며, 지속되는 군사적 위협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일 기자

조계종 포교원·현대불교 공동 캠페인

새학기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어린이에게 불서를 선물합시다

- 어릴 때 읽은 책 한권이 평생에 걸쳐 영향을 미칩니다. 맑고 깨끗한 동심에 불날 씨앗을 뿌려듯 부처님 가르침을 심는다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큰 숲이 될 것입니다.

- 본지와 조계종 포교원은 공동으로 전국의 사찰, 사부대중과 함께 새 학기와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까지 어린이 불서 선물하기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 전법은 불자의 임무이며 사명입니다.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 목표를 삼는 마음으로 사부대중 여러분께서 이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호계원장 스님, 사찰, 본지 독자들 캠페인 동참

조계종 호계원장 일면 스님이 포교원과 본지의 공동 캠페인에 동참하는 금일봉을 희사했습니다. 또한 일선 사찰들과 불자, 단체들의 보시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의 성원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일면 스님
호계원장/성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혜사 스님
도선사 주지



성형 스님
형서사 주지



성일 스님
선운사 주지



미란 보살
어머원장

■ 캠페인에 동참한 사찰 불자와 단체
서울 성북구 적조사, 한국 씨티에스, 김한솔 불자, 인근창 불자, 위미희 불자

■ 문 의 : 02)2011-1903 (조계종 포교원)
02)2004-8258 (현대불교)

■ 동참계좌 : 국민 006-01-0785-361 (주)현대불교신문사

어린이 불서를 법공방 받고 싶은 독자와 사찰에서는 문의 전화나 이메일(motp79@hyunbul.com)로 신청해 주십시오.

신상품
천덕불교
LED 인등 전구
031)792-6288
031)794-4055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제1회 통도연등축제

봄 향기 그윽하고 산하까지 생명력으로 충만한 이 좋은 시절에 제1회 통도연등축제를 개최합니다. 그 예전 부처님께 올린 연등 공양이 오늘에 이르러 나와 이웃을 위한 등을 밝히는 시민축제로 거듭나기에 이르렀습니다. 자비의 등불이 온 누리에 퍼지기를 기원하면서 시민·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당부 드립니다.

제등행렬 2013년 4월 27일 오후 7시 통도사 산문 앞
이동경로 : 통도사 산문 → 신평 삼거리 → 신평 터미널 → 통도사 산문

나눔의 장 대형전통등 및 장염등 전시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코끼리등·연꽃등·동자승등 외 다수의 대형등 전시
전통문화무로체험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탁본체험·연등 만들기·제기 만들기·페이스페인팅·소원지 적기 등 지역특산물 장터 (4월 26일 ~ 28일) 3일간 _ 통도사 산문 일대

통도연등축제 기념음악회 2013년 4월 28일 오후 7시 _ 통도사 산문 앞 특설무대
출연진 : 현철·김양·박규운·함영주·김국환·시나브로·신경만통도사 합창단·양산시립합창단 등

통도연등축제조직위원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055)382-7182, 381-1442 / 전송 055)382-7196

통도연등축제조직위원회 공동위원장 원산 도명 이 성 휘 합장

60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기원 대법회

2013년은 한반도에서 전쟁의 포성이 멈춘지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에 영축총림 통도사에서 사부대중이 함께하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 기원대법회"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이는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이며 남북 북이 대치하며 항상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절망의 현실을 온 국민과 사부대중이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의 통일을 발원하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 땅에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한반도에 평화가 함께하기를 기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회를 계기로 전쟁의 절망이 통일의 희망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기를 발원합니다.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행사내용

1부 호국선열과 평화를 위한 기도
2부 한반도 평화대회 및 남북통일 기원 대법회

일시 2013년 4월 30일 오전 10시
장소 양산종합실내체육관
주최 대한불교조계종
주관 영축총림 통도사 본·말사
한국전쟁 정전 60주년 한반도 평화대회 운영위원회
후원 경상남도·양산시·양산시 사암연합회·통도사 신도회

불지종가 영축총림 통도사 주지 원산 도명 합장
경남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 055)382-7182